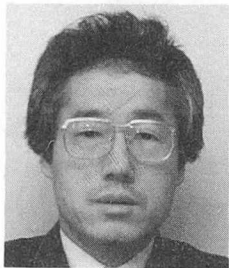


UR 각료회의와 한국의 양돈산업



황 민 영

(한국농어민신문 상무)

가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그 협상시한이던 '90년 12월을 넘김으로써 한국의 농축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한국 농어민들에 있어서 협상의 연기는 단순한 시기의 연기일 뿐 근본적 상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여전히 자국 이기주의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쌍무협상을 통해 대한 개방압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UR협상은 농산물 시장의 전면개방, 농업보조금의 감축 및 철폐, 수출 보조금의 철폐 등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의 지위 경쟁의 원칙을 강력히 주장하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한국 농어민들 앞에 엄청난 충격으로 등장했던 UR농산물 협상이 한국의 농축수산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그 영향이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의견이 일치하면서 UR협상이 어떻게 타결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협상이 한국 농축수산업에 불리하게(아니면 유리하게) 타결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입장이 얼마만큼 반영될 것인가 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이지만, UR협상

은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 농업보조금의 감축 및 철폐, 수출 보조금의 철폐 등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을 강력히 주장하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또한 UR협상의 시한내 타결이 무산됐던 '90년 12월 3일~7일의 브뤼셀 각료회담에서 미국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 회담을 무산되게 이끌었던 EC도 역시 농산물수출국이다. 결국 UR협상은 농산물 수출국들의 입장대로 타결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브뤼셀 각료회담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농산물수입국의 입장은 발붙일 여지도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세계 식량문제의 심각성이나 환경보전, 개도국의 특수성 등은 시장확대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어 15개의 NTC품목을 제시하고 개방유예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수용되기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UR협상의 결렬이후 강화되는 미국의 통상압력 등이 UR협상의 연기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보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을 UR협상의 타결전망으로부터 변화될 상황에 있어서 한국농축수산업

의 진단과 대응방안으로 돌려져야 한다. 물론 UR협상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파악,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상되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농축수산업의 발전방향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이것은 국내 일각에서 UR협상 등 외부압력을 핑계로 국내 농축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귀찮은 존재로 취급, 도태시켜 내리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농축수산업의 장기적 발전계획과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매년 수립되는 농림수산부문 예산을 분석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며, 생산성 향상과 경영합리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제기되는 각종 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공업우선의 성장정책하에서 의도적으로 농업을 소외시켜 온 정부정책에 오늘날 농어업문제 심각성의 근본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UR협상이 몰고올 파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농업을 보호·육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과감한 투자확대를 실시해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양돈산업과 같이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UR협상의 타결 전망에 대한 관심에 앞서 양돈산업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대책의 강구와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전업화와 계열화를 통해 양돈산업의 구조개선작업을 추진,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자동화와 경영합리화를 이루어야 한다.

물론 양돈산업도 전체 농축산업의 흥망성쇠에 따라 그 발전의 한계가 지워지며, UR협상으로 인해 자체 농축수산업이 안게 될 어려움과 똑같은 어려움을 안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국의 양돈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서 몰려들어올 수입농축수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수출산업화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한국농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야 하는 과

제를 안고 있다. 생산기반의 조건에 있어서나 생산기술수준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갖기에 충분한 잠재력이 있을 뿐 아니라, 연간 35만톤 이상을 수입하는 일본이라는 황금시장을 지척에 두고 있어 무엇보다도 수출가능성이 높은 것이 양돈산업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한국 양돈산업은 사육두수에 있어서나 생산규모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90년 9월말 현재 13만 1천 농가에서 4백56만6천두를 사육, 호당 34.7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또한 규모별 사육현황에 있어서도 1백두 이하의 부업농가수가 '81년에는 사육농가의 99.6%, 전체두수의 63.3%를 차지하던 것이 현재는 각각 93.6%, 25.1%로 감소, 전업화·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의 축산장기발전대책에 따르면, 앞으로의 돼지고기 수급 및 사육두수 전망은 국민식생활패턴의 변화와 소득수준의 상승을 고려해 볼 때, 1인당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은 현재의 11.2kg(국민전체 48만톤)에서 2001년에는 19.6kg(국민전체 92만5천톤)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적정 사육두수로 9백1만4천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양돈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도약하기에는 아직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황금시장을 지척에 두고 있어 어느 나라보다도 수출조건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인 대만, 덴마크, 미국, 캐나다 등에 비하여 일본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실적이 크게 뒤져있는 점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호당 사육 규모가 영세하여 경영합리화가 어렵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생산성 합리화도 크게 제약되고 있다. 또한 수급불균형에 따른 연속적인 가격등락, 유통체계의 비효율성 등도 국내양돈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이며, 수출확대를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다. 또한 육가공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여 수출후 남는 잔여육의 처리가 문제되고 있고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한 사양기술과 농가경영기술에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또한 수출용 도축시설의 부족과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시설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한국 양돈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돈산업의 구조 개편이다.

전업화와 계열화를 통해 양돈산업의 구조개선작업을 추진,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자동화와 경영합리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축산단지를 조성, 생산·판매·가공·유통시설 이용의 연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재정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는,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전개이다.

축산물 가격안정제도를 현실화 하고 축산관측기능을 강화하여 수급불균형에 따른 연쇄가격 등락의 고질적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

셋째는, 유통구조의 개선이다.

축산물 도매시장을 증설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육류등급제를 시급히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수출돈육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축장의 신설과 축산물 가공산업을 육성, 수출의 확대와 양돈의 부가가치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

넷째는, 축산공해에 대한 합리적 대책이 요구된다.

가축분뇨의 자원화·재활용방안의 개발과 처리시설 자금에 대한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생산비 절감을 위해 불합리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는 배합사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하루 빨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도축세, 관세면제 등 세제상 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는, 생산자 스스로의 단결과 규모의 효과를 올리기 위한 협동조합 조직의 구축과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안전 돈육생산을 위한 철저한 사양관리의 준수와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현재 한국 양돈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1세기 한국농업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그 속에서 양돈산업이 차지해야 할 위치와 역할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다.

이런 견지에서 한국 양돈인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과제는 UR협상 등 외부압력을 핑계로 비교우위론에 입각, 한국 농축수산업을 자유경쟁의 원리에 내맡기려는 움직임을 분쇄하고, 농축수산업 특히, 양돈산업의 중요성과 보호·육성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전국가적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